

신세대의 복식현상

— 의복동조를 중심으로 —

오종은 · 한명숙

(상명여자대학교 가정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90년대 사회적 담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의 신세대를 그들의 복식현상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유와 개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결국은 그들 집단의 유행에 따르고 그 집단에 수용되기를 바라는 동조심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직접 촬영한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90년대 신세대의 가치관, 의복행동 등을 다각적 시각에서 조명해 보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각종 저널리즘과 상업적 이해가 합작으로 빚어내고 있는 「신세대론」의 수집 및 정리.
2. 신세대 복식착용 실태에서 나타나는 의복동조의 현상 분석.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1. 신세대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들을 주제로 한 사회과학 문헌, 일간지 및 정기간행물의 기사를 수집·분석하고, 동조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선행되어진 연구들을 중심으로 의복동조를 고찰하였으며,
2. 실증적 연구에서는 신세대 복식현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방법이 아닌 연구자가 직접 사진촬영을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사진촬영기간은 1995년 봄부터 가을까지였으며, 서울시내 대학가를 중심으로 각 대학 캠퍼스와 그 주변, 그밖에 신세대가 자주 가는 신촌, 압구정동 일대 등을 촬영장소로 하여 얻은 총 900여장의 사진자료를 신세대 의복동조현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세대 유행복식의 일반적 경향 :

- 1) 정장 스타일보다는 블라우스, 스웨터, 티셔츠, 슬랙스 등을 위주로 한 캐주얼 웨어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진(jean)바지는 거의 획일에 가까운 정도로 유행하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2) 성의 구별없이 남녀 공통으로 입는 유니섹스 의복을 많이 착용하고 있었다. 진 바지 이외에도 티셔츠, 스웨터, 셔츠, 신발, 헤어스타일 등에서 남녀 공통으로 유행하는 것이 많

았다. 신세대들이 '워커'라 칭하는 부츠 형태나 발가락이 노출되는 슬리퍼 형태의 신발, 헤어 염색의 유행이 대표적인 예이다.

- 3) 현대 대중사회에서의 마스크의 영향력을 증명하듯 TV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연예인의 독특한 스타일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정 연예인의 커트와 염색을 한 헤어스타일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신세대는 인쇄매체보다는 감각적인 영상매체를 선호하는 영상세대이므로 영상매체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 4) 짧은 유행주기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는데 한가지 스타일이 채택되어 소멸되기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음을 촬영기간 동안 알 수 있었다. 이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신세대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 5) 유행주기가 짧음과 동시에 한 스타일이 유행하는 기간에는 매우 강한 동조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기성세대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과감하고 독특한 스타일이 소개되면 그것이 신세대라는 집단 내의 규범이 되어 그 의복규범에 따름으로써 그 집단에 수용되기 원하는 규범적 동조를 하며 동시에, 새롭고 독특한 스타일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집단과 동일시하기 위하여 그 의복을 모방하는 동일시적 의복동조를 하고 있다.

2. 유행복식의 실제

1) 착용한 의복의 종류 및 몸체 밀착 정도 분석

(1) 상 의

① 겉 옷

겉옷의 착용도는 자켓형이 가장 많았고, 스웨터나 셔츠를 입지 않고 허리에 묶은 형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중간옷

셔츠와 티셔츠의 착용도가 가장 높았고, 티셔츠+슬리브리스 티셔츠+티셔츠 베스트 등과 같이 겹쳐 입은 형태도 많았다. 여름에는 흑백색상의 슬리브리스나 몸에 Fit되는 형태의 티셔츠가 크게 유행했다.

(2) 하 의

바지의 착용도가 스커트의 착용도보다 높은 편이었으며 청바지가 대부분이었고 청바지가 응용된 형태로 볼 수 있는 오버올이나 무릎길이의 진 바지도 유행했다. 드레이프성이 좋은 소재의 일자형 슬렉스는 발동을 덮을 정도로 길었고 매우 짧은 길이의 핫팬츠도 많았다. 스커트는 미니스커트와 롱스커트 길이의 타이트나 A라인, 바이어스재단된 플레어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3) 상의와 하의의 조합

셔츠+청바지, 청자켓+셔츠+스커트의 형태가 가장 많았다.

(4) 몸체 밀착 정도

전체적으로 몸체에 밀착 정도가 높은 Fit형이 우세한 경향이였다. 특히 신체의 선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밀착되는 형태도 많았는데, 이는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고 개방적인 미의식을 갖는다는 신세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2) 소품과 신발분석

(1) 액세서리

가방·신발을 제외한 액세서리는 사진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크기가 작거나 눈에 띄지 않는 형태는 제외하였고 그 외 가장 유행한 것이 코사지였다. 그밖에 장식적 요소가 강한 썸글라스가 크게 유행하였는데 상의에 꽃거나 머리피처럼 착용한 형태도 있었다.

(2) 가방

가방은 크게 어깨에 한쪽으로 메는 형과 양쪽으로 매어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배낭형이 주조를 이루었는데 어깨에 매는 형의 경우 끈에 금속 소재를 사용하여 화려해 보이도록 한 형태가 많았다.

(3) 신발

신발은 아주 높은 통굽으로 앞에도 굽이 있는 형태와 여름에는 얇은 끈으로 엮은 듯한 샌들 형태가 유행했다. 가을에는 길이가 긴 롱부츠와 무박한 워커, 웨스턴 스타일의 부츠가 크게 유행했다.

3) 헤어스타일 분석

길이는 장발이나 단발이 주조를 이루었고 형태로는 퍼머넌트한 형태보다는 스트레이트로 풀고 다니는 형태가 가장 많았다. 특히 눈에 띄는 밝은 색으로 염색이나 코팅처리를 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신세대에게 독특하고 개성적이라고 판단되는 스타일은 신세대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복제가 됨으로써 그들 집단의 의복규범에 동조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세대가 '나는 다르다' 같은 것은 싫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획일적인 개성표현'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신세대라는 집단 내에서 서로의 비슷함을 확인하고 인정받는 동일시적 의복동조를 통해 그들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안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세대는 의복을 통해 신세대집단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하며 동시에 기성세대와는 차별화를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